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해 경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Practicum
on Career Choice

200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해 경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용섭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해 경

이해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2008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1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회복지현장 실습	5
1.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이해	5
2.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영향요인	9
제 2절 진로선택	14
1. 진로의 의의	14
2. 진로선택이론	15
3.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21
4. 전문선택의 영향요인	22
제 3절 선행연구	25
1. 현장실습요인에 관한 연구	25
2.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26

제3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모형	28
-----------------	----

제 2절 연구가설	28
-----------------	----

제4장 실증분석

제 1절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30
1. 자료수집	30
2. 표본특성	30
제 2절 측정도구 검증	32
1. 타당도 분석	33
2. 신뢰도 분석	36
제 3절 차이분석	37
1. 기술통계	37
2. 특성별 차이분석	39
제 4절 연구모형 검증	49
1. 분석방법	50
2. 연구모형 검증	51
제 5절 가설검증	53
1. 가설검증결과	53
2. 조절효과분석 결과	56
제 6절 분석결과 논의	60
1. 차이분석 결과	60
2. 가설검증 결과	62
3. 조절효과 분석 결과	63

제5장 결론

제 1절 분석결과의 요약	65
---------------------	----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방향	66
참고문헌	69
설문지	75

표 목 차

<표 2-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Fortune의 실습지도내용에 대한 비교	13
<표 2-2> Holland의 6가지 직업적 성격의 특성	18
<표 2-3> Super의 직업발달 과업	20
<표 4-1> 표본의 특성	31
<표 4-1> 표본의 특성 (계속)	32
<표 4-2> 요인적재값 행렬	34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5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계속)	36
<표 4-4> 신뢰도 분석	37
<표 4-5> 기술통계량	38
<표 4-5> 기술통계량 (계속)	39
<표 4-6> 성별에 따른 T-검정	40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41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계속)	42
<표 4-8> 실습기관 차이검증	43
<표 4-8> 실습기관 차이검증(계속)	44
<표 4-9>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차이검증	45
<표 4-9>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차이검증(계속)	46
<표 4-10> 실습기준에 따른 차이검증	47
<표 4-10> 실습기준에 따른 차이검증(계속)	48
<표 4-11> 문항간의 상관관계	50
<표 4-12>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52
<표 4-13> 가설 검증 결과	54
<표 4-14> 연령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56
<표 4-15> 연령에 따른 가설검증	58

그림 목 차

<그림 2-1> 연구모형	28
<그림 4-1> 연구모형 검증 결과	55
<그림 4-2> 연령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59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Practicum on Career Choice

Lee, Hae-Ky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decreased job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and/or graduate students) graduates due to the worst economic crisis in recent years, there have showed the phenomenon of so called 'job searching reckless of wage levels and career plans,' resulting in many graduates' application for positions of social workers and/or counselors with lower wage levels. They selec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nking that even if they have not an aptitude for the area, things just would go well over time once they are started. College students selecting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lay their purpose on first being employed as soon as possible and second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University (and/or graduate students) with the first purpose sometimes change their major after finishing the first semester in the first academic year or give up their study. They leave in order to search another path after just wasting time in thinking of their real aptitude.

Practical training in actual working sites is a requisite subject for university (and/or graduate students) and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social worker for them. They can graduate after complete practical training courses and where and how they participate in the training have an important role in career selection. Practical training provides an opportunity to form one's own values, and improve and display specialty, and is even more important in terms of processes through which one can grow as a social worker.

Practical training in actual working sites is a process through which one apply knowledge, theories, and values acquired from the university to the actual sites, and provide a chance to determine whether one has an aptitude for the work and select the right career direction. When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ry to identify career directions clearly, determining their specialty among many areas of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health care through subjects they learned and practical training they participated in, will help them in choosing career directions.

This study lays its purpose on examining whether practical training in actual working sites would help university (and/or graduate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social workers as a gateway to society and finding out the effects of practical training on career selection. And also the purpose is laid on providing basic material possibly helping university (and/or graduate students) who will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First, the hypothesis that of factor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satisfaction with regular lessons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selection was rejected. That is, it was revealed that of factor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satisfaction with regular lessons does not affect career selection.

Second, the hypothesis that of factor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the desire of facilities and/or institutes to have connections with the

depar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selection was rejected. That is, it was revealed that the degrees to which facilities and/or institutes desire to have connections with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have no effect on career selection among the students.

Third, the hypothesis that of factors of practical training, satisfaction with practical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selection was adopted. That is, in practical training in social work one can lay equal emphasis on theory and practice, and skills acquired even only practical training in social work can be applied to actual working sites of social welfare, and also during the training student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resulting in such that everything related to career selection do not become vague and unclear, so the students can select one special area among various areas of social welfare. Fourth, the hypothesis that of factors of practical training, displaying ones abilities during the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selection was adopted. That is, the students can display their own abilities and skills during the training sufficiently, have opportunities to acquire the value of social welfare, faith, and a sense of ethical duty, and are able to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during the training, faithfully engaging in training schedules and tasks, resulting in such that everything related to career selection do not become vague and unclear, so the students can select one special area among various areas of social welfare.

In addition, i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troduces curricula in the department to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interest in it, and make regular visit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create opportunities to cooperate, students who enter the department can become easy to adapt to the department and have opportunities to make right career selection without much trouble.

In practical training also, there were more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ones, and the training was provided in social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related to the elderly. In fact, social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require more male workers, Of course, there are lots of matters that female workers must take care of, while because social work also require physical strength, men's help is needed. In order for men to have interest in social work, wage levels should be increased to maintain standard of living.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요즘 매체마다 ‘묻지마 취업’이란 말을 하며 최악의 경제위기와 함께 대학(원)생들의 취업의 문을 닫아 버리고 있고 있어, 임금이 적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서도 우선 시작해보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는 대학(원)생들은 첫째,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둘째,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오게 된다. 첫 번째 이유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온 대학(원)생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생겨난다. 그것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다 시간낭비만 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과의 처음 설립된 목적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보다 나은 이론적 지식과 서비스로 전문인들을 배출해 내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과 다르게 요즘 사회복지학과에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는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다른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것은 취업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대학에서 복지학과의 너무 많은 개설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되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격증을 주기 위한 장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새롭고 다양하게 배울 것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만을 고수할 수도 없다. 사회복지학과는 다른 과와 차별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자격증은 다른 과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면 주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실천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성시키는 곳으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 가치, 실천적 기술을 교육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하는 교육은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데 있어 실천에 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 교육에서 실습의 중요함을 알고 있고 현장실습에서 전문적 지식과 가치, 이것을 활용 할 수 있고 실무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복지 교육에서 알고 있

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양성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실습교육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이 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경험적 이야기들을 이론적으로 밝혀냈다(조수민, 2006). 이것은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에 필요한 것을 지도해 주지 않고, 잡일처럼 아무 일이나 시키고 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실습을 마친다. 실습생들은 실습이 실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 적성에 맞는 곳을 찾으려 했다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게 된다.

현장실습이 대학(원)생들에겐 꼭 필요한 필수과목이면서 사회복지사의 첫 걸음이기도 한다. 현장실습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진로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았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커리큘럼에 맞춰 수행을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 진로 선택에 있어 자기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흥미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현장실습은 자신의 가치관, 전문성을 훈련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이며,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실습을 이수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학생들이 있어 안타깝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교육에서 배운 이론적, 전문적 지식을 기술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점검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을 마련해 준다. 실습생들은 각자 졸업 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의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진 않다. 실습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지,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실습이 사회복지사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의 첫 발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려놓느냐에 따라 정착을 하고 일에 보람을 느끼며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학들은 계속해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이 되었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4년제를 졸업한 졸업생은 1급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면, 2년제는 졸업 후 1년 뒤에 1급 시험을 볼 수 있게 차별화를 두었다. 그러나 4년제나 2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관한 이수과목들은 특별히 다른 게 없으며 오히려 2년제 대학은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늘어 시간의 부족

으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실천학문인 복지과목을 이론과 지식으로 전달하고 있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해, 대학시절에 1회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교과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질적인 측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정수경, 200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무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실습생들에게 지도를 제대로 못해주고 잔심부름으로 실습을 마치게 되고 실습생 또한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과 과목으로 생각하고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실습생들은 편한 곳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 앞으로 진로선택과는 상관 없는 곳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흥미도 잃고 졸업 후 방향을 잡지 못해 해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 및 가치를 현장에 투입되어 적용을 시켜 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진로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뚜렷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배운 과목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을 확실히 정하는 것도 진로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장래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박미정, 2000).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졸업 후에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실천적 학문을 실습현장을 통해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고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습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할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실제로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실습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요인과 진로선택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본다.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모집단인 대상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으로 실습을 마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학과 관련 요인, 실습 관련 요인간의 관계성을 통하여 진로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진로선택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장실습 이해와 목적 영향요인을 살펴본 후, 진로선택의 개념과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및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장실습, 진로선택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알아보고 향후 연구방향을 알아본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병행하였는데 우선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설문지를 284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진로선택의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과 관련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마친 대학(원)생들의 학과의 교과수업 만족도, 실습내용, 실습의 만족감 등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하였다. 끝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회복지현장 실습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현장실습은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및 가족, 지역과 사회의 복합적인 복지를 실현하려는 실천학문으로 사회복지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다.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현장에 적용시키고 개선에 나가는 이수과목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보편적 구성요소로서, 현장실습(field-work), 현장경험(field-experience), 실습교육(field-instruction), 현장교육(field-education), 실습(practicum)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김선희 외, 2001), 이는 사회복지가 실천학문이며 응용과학이므로 실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습생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 전문적 교육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서비스 체계에서 정기적인 실습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전문직의 공통적인 기본과정 내용을 익힘으로써 일반실천가(generalist)로서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 전문적 교육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권현진, 2004). 이와 같이 실습은 실습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장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을 검증받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 중요한 과목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습은 개인과 가족, 소집단, 지역사회 공동체에 물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며 이러한 실습의 경험은 다시 대학의 강의를 통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장차 대학졸업 후에 전문직업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소민, 2008).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마지막으로 걸쳐가는 길목으로 사회복지사의 본질에 대해 실천을 통해 터득함으로써 유용한 문제 해결자가 되고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능동적 촉진자가 되는 첫 발을 딛게 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강희자, 2003).

따라서 현장실습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태도 뿐 아니라 현장실습을 맡게 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실습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살려 현장실습을 통해 재능 있는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복지교육과정 중 꼭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고 자격증도 부여되는 필수과목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장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정의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적용함으로써 현장 속에서 실습생의 가치관, 이론적 지식, 실천적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배워가는 기회의 장이다.

가. 현장실습의 목적

현장실습의 목적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가치관을 전문가인 자신의 실천 속으로 통합하려 하고, 나아가 이 세 가지 국면들을 전문적 자아의 전체적인 개념과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 실천스타일과 통합하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습의 최종 목적은 자신을 전문적 사회복지사로 성장시키려는데 핵심이 있다(조취일, 1998). 2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지식과 기술의 통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원조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개입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개인, 소집단, 가족 및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사례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역시 실습의 목적이 될 수 있다(한인영, 2002).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동료나 상사, 내담자와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올리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현장실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대학과 기관이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실습을 시켜야 하며, 실습생의 실습경험에 깊이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의 이론적인 학습 이외에 현장에서 배우는 통합적이고 기술적인 학습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복지사로 보다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강희자, 2003). 대학은 실천 현장의 교량역할 및 학습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습을 사회복지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실습생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을 둔다(류재중, 2002).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및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장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다섯째, 실천현장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적성 테스트 및 자아인식을 통해 전문적 자아인식과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한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6).

나. 현장실습의 중요성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며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실습을 동반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며 한번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한번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CSWE)가 제시하고 있는 실습교육기준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최소한 400시간의 경험을 그리고 대학원 프로그램은 최소한 900시간의 실습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1주 1회씩 총 16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은 4주간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교육의 핵심적인 구성 체계는 기관의 실습체계, 실습지도자, 교육기관, 실습 지도교수, 학생이며, 각기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학교는 기관과 실습계약 혹은 실습배치를 타협하기 전에 실습교육을 촉진하거나 혹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제약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김선희 외, 2000). 하지만 최근 많이 생겨난 사회복지학과들로 인해 늘어난 학생들 수는 실습 지도교수가 실습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한다. 학교와 현장 간의 교류 없이 실습이 진행되어 학생들은 실습기관을 정할 때에도 그 기관의 실습지도 경력이 몇 년이 되었는지, 실습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한지, 어떠한 내용으로 실습 지도를 하는지에 대한 학교의 지도 없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경험은 지도교수의 수퍼비전을 받지 못해 학교와 또 다른 분리를 낳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인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교과목으로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해 실습을 하고 있다 보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하고 가까운 곳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실습에 임하는 자세는 실습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하는 내내 실습지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달을 위한 전문의 윤리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책임을 학교와 공유하고 있다(성민선, 1995). 현장실습지는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이 한명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기관으로써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0)가 인정하고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하느냐는 그들의 실습에 대한 목적 달성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이는 실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실습지도자 및 실습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정, 2000)

이는 실습생들이 선호하는 실습기관과 그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실습생들이 선호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의 5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한 김주리(1992)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복지기관, 의료기관, 청소년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3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한 정명숙(2001)연구에서는 직접적 서비스기관이 88.5%, 간접서비스 기관이 11.5%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은 실습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학습 분위기 조성을 한다.

즉, 학생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목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관의 조직구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셋째, 실습기관이 학생들의 전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넷째,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의 교육적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세미나, 워크숍, 혹은 다른 학습경험을 통해 실습지도자나 다른 직원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선희 외, 2000).

따라서 실습기관은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학교와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 지도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실습생들이 실습생이 반드시 익히고 경험하고 나가야 하는 핵심적인 실습지도 내용에 대한 개발과 함께 실습생들과 실습 지도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어떤 기관이 실습 지도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도하고 있는 곳은 어떤 기관인지, 이에 따라 어떤 곳을 가야하는지 그 기관에는 실습을 지도할 만한 실습 지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실습 지도를 하는 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 따라서는 아직도 실습 지도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실습 지도를 할 만한 실습 지도자가 없어서 실습 지도를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실습 지도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로지 학생들의 몫으로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기도 하며 경력이 부족한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지도를 받기도 하며, 실습 지도계획서도 없이 업무보조라는 명목아래 실습 지도를 하기도 한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영향요인

그 동안 이루어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의 실습생들의 어려움이나 진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주로 실습의 구성 요인에 따른 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거나 전문직 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장실습이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주요 구성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실습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혀진 실습생 개인요인, 실습기관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 실습생 개인요인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된 자료에서 보였듯이,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태도나 실습기간동안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에 종사하면서 미치게 되는 영향 때문에, 대학이나 실습기관, 시설 등의 교육이나 실습생의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 경험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때, 학생들은 실습에서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습생들은 실습기관이나 시설에서 경험, 습득, 그리고 조언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천을 적용하여 통합하는데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습생들은 현장의 경험들의 사례들을 잘 정리하고 실습기관의 수퍼바이저, 지도자를 존중하고 겸손함과 기관과의 직원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실수를 하였을 경우 잘못을 깨닫고 시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긍정적인 성격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수퍼바이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실습생들은 이러한 역할 외에도 권리도 갖게 되는데,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습, 지도를 받을 권리, 학습기회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다양한 사례를 맞게 될 권리, 이론과 기술뿐만 아니라 성장 지향적인 학습경험을 할 권리, 실습 수행평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받을 권리, 적절한 수준 이상의 기술 및 훈련 경력을 가진 실습지도자로부터 실습 지도를 받을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생 자신은 물론, 실습기관과 학교에서의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김선환, 2007).

현장실습은 기관과 실습생이 하나가 되어야 양쪽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사회로 나아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조수민(2006)은 선행연구를 언급하면서 개인이 실습 이전에 경험했던 요인들, 실습생의 개인의 특성(사회복지 전공 선택 및 만족도)등이 실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나. 실습기관 요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생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슈퍼비전을 받느냐에 따라 진로의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고 실습생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쓸 수 있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습기관은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할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과목에 비하여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고, 실습을 통하여 자신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현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미정, 2000).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를 보면 실습기관과 접촉 및 실습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의 실습지도교수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필요시 기관방문, 전화,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실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첫째, 실습지도자와 학생별 실습목표를 협의하기 위해 둘째, 학생의 실습목표 성취정도과 실습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셋째, 실습관련 문제발생을 예방하거나 문제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등 있다(한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6).

실습기관이나 시설에선 실습생을 맞이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역할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실습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의 일반적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김선희 · 조취일, 2001).

(1) 기관의 일반적 조건

- ① 클라이언트, 타 기관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행정적 절차가 다른 유형의 기관들의 건전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 ②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③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나 실천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④ 다양한 학생들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이 선호된다.
- ⑥ 진취적인 실습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⑧ 학교와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 즉 공동연구, 자문, 기관 내 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
- ⑨ 지속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학교와 장기적인 관계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2) 기관의 실습환경 구성기준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습지도의 기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촉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실습지도자가 자격에 부합되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 ③ 학교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서비스 영역과 학생의 전공, 부전공의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실천방법론과 연결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적절한 시설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사무공간, 기자재, 면담실, 실습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⑤ 신규 임명 실습지도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목 수상이 가능토록 시간을 허락해 준다.
- ⑥ 실습지도자가 학생지도 준비, 학생과의 정기모임, 학교의 실습지도교수와의 협의,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할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 ⑦ 업무 수행 중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꺼이 상환해야 한다.
- ⑧ 실습중인 학생을 인종, 성, 종교, 국적, 나이, 결혼유무, 장애 등의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실습내용

실습은 전문사회복지사 실천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경험들로서(권현진, 2004),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내용은 실습교육과정 속에 기관에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김선화, 2002). 현재 학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은 일반주의 실천가(generalist social worker) 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습교육도 이러한 교육 목적에 맞추어 실행되어야 하며, 실습지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및 기술에 근거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주의 실천 중심의 실습을 토대로 학생은 다양한 세팅과 클라이언트 집단에서 각기 다른 문제에 다양한 개입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질적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주의 실천에 근거하여 실습지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 및 기술은 이시연(2001)이 번안한 Fortune(1994)의 ‘실습지도의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 및 기술’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Fortune의 실습지도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Fortune의 실습지도내용에 대한 비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실습교육내용	Fortune의 실습지도내용의 해당부분
1) 오리엔테이션 (1)기관소개 (2)지역소개 (3)대상 집단의 이해 (4)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5)실습일정과 과제안내	-기관의 사명과 철학의 이해 -기관구조파악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동료와의 관계 형성 기술
2)행정업무 (1)훈련목적 하의 각종 기안서 작성 및 결재과정 참여 (2)기관운영과 관련된 규정검토 (3)예·결산서 작성 연습	-관료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능력 -기록유지와 작문 능력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관의 정책 이해
3)사례관리 (1)사례접수(인테이크) (2)사례회의 (3)자원연결 (4)개입 (5)사후관리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클라이언트 체계의 사정기술 -클라이언트 개입 혹은 치료계획의 기술 -클라이언트 개입 및 치료계획의 적용 기술 -클라이언트 의례와 사례관리 기술 -클라이언트 옹호활동
4)집단지도(최소 택 1) (1)소집단지도 (2)대집단프로그램	-집단사회사업 실천기술
5)지역복지 및 정책개발 (1)지역사회조직 (2)정책개발 및 평가 (3)사회활동, 홍보 옹호 등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지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6)선택 (1)개별상담 (2)가족상담 및 치료 (3)프로포절 작성 (4)사회조사 (5)타 기관 방문 (6)지역탐방	-클라이언트와의 면접기술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지식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ortune의 실습지도내용에 포함된 부분	-인간의 다양성 존중 -사회 및 경제 정의 증진의 사명감 -자아인식 -전문적 성장에 대한 책임감 -인간행동과 다양성 효과성 평가 -지식 및 적용기술 -평가기술 -종결기술

출처: 양옥경(2005)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지침서 연구보고서

Fortune(1994) Field Education

이와 같이 실습생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감이나 책임감이 깊어질수록 앞으로의 진

로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다.

제 2절 진로선택

1. 진로의 의미

진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을 만큼 신중을 기하고 전 생애의 반을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로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에 있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좌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로에 있어 그 일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자신을 만족시키고 능력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앞으로 일을 발전시킬 수 있고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진로(career)

진로란 개인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개인의 태도, 가치관, 기대감을 포함한 일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Storey, 1979)한다. 직업(vocation, occupation)보다 넓은 의미를 갖으며(이성진, 김계현, 임용우, 김원중, 1984) 한 개인이 생애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진로는 개인이 가졌던 직업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그의 태도, 동기,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진로계획, 직업탐색, 일의 세계에 대한 태도와 지식, 직업에 대한 만족도, 승진, 직무에 대한 동기, 직업변경 등이 모두 진로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김계현, 1995).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직업적인 일, 가정생활, 취미 생활 등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보수에 관계없고 시간에도 제한 없이 한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진로란 인간이 생계를 위하여 해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정성숙, 1999).

나. 진로의식

진로의식이란 개인이 일생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인식하고 탐색하며,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것(조창호, 1989)이라고 할 수 있다. 강무섭, 박영순(1984)은 진로의식을 발달 측면에서 직업적 자아주체성(vocational self identity)의 형성으로 자신의 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식하건 사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진로결정

진로결정이란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높은 점수는 보다 확고한 진로결정수준을 의미한다.

2. 진로선택 이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개인적 요인(적성, 흥미, 성격, 학력, 신체적 조건 등), 환경적 요인(부모 직업 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적 요인(직업에 대한 태도, 가치관, 직업 분야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래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직업흥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 및 학업성취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그 직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박인봉, 2003).

가.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

진로발달에 발달 심리적 접근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Ginzberg(1952)는 개인이 직업의 선택에 도달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직업의 선택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주관적인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 현실세계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며(이정근, 1992), 한 개인이 최종의 직업선택을 하기까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심리적 시기를 경험한다

고 주장하였다.

(1) 환상기(fantast period : 6-10세)

이 시기는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는 시기이며,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 활동을 통해 표출하려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욕구와 충동을 직업선택과 동일시하는 단계이다.

(2) 잠정기(tentative period : 11-17세 전후)

이 시기에는 비로소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나 직업선택의 문제에서는 현실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흥미나 취미, 능력, 가치 등을 중심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을 갖는 시기로서 다시 흥미단계(11-12세), 능력단계(12-14세), 가치계(15-16세), 전환단계(17세 전후)의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3) 현실기(realistic period : 18세 이상)

18세부터 성인에 이르는 시기로서 직업선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개인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며, 다시 탐색단계, 구체화단계, 전문화단계의 하위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Ginzberg의 이론은 개인의 직업선택은 초기에는 능력, 흥미, 가치관 등이 좌우하지만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외부적인 조건과의 타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이론은 진로지도에 필요한 개인의 직업적 성숙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직업선택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문제의 발견과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 Holland의 선택이론

Holland(1954)는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이 직업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의 가정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 선택은 그가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개인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개인적 요소란 또래집단, 부모, 중요한 타인, 그가 속한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환경에 대처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 즉, 개인의 특유한 적응 방향(성격)을 만족시켜 줄 수 있

는 직업 환경을 선택할 때는 바로 자신의 적응 방향(성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정근, 1992).

Holland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1) 우리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환경을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직업 적응방식의 유형도 역시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유형의 여섯 가지 구분으로 할 수 있다.

(3)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찾는다.

(4)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성격특성과 환경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가설을 종합하여 6가지 유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Holland, 1992)

<표 2-2> Holland의 6가지 직업적 성격의 특성

직업적 성격 유형	성격특징	대표적인 특성
실재적 유형 (Realistic type)	남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검소하고, 지구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소박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고,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기술자, 자동차 및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탐구적 유형 (Investigative type)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비판적,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타며, 신중하다.	과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의료기술자, 의사 등
예술적 유형 (Artistic type)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며,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이다. 또한 감정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개성이 강한 반면, 협동적이지 않다.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무대감독, 작가, 배우, 소설가, 미술가, 무용가, 디자이너.
사회적 유형 (Social type)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적이며,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사회복지가, 정치가, 판사, 영업사원, 상품구매인, 보험회사인, 판매원, 연출가 등
설득적 유형 (Enterprising type)	지배적이고, 통솔력, 지도력이 있으며, 말을 잘하고, 설득적이며,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성적이다.	기업경영인, 정치가, 판사, 영업사원, 상품구매인, 보험회사인, 판매원, 연출가 등
관습적 유형 (Conventional type)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공인회계사, 경제 분석가, 은행원, 세무사, 경리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감사원, 법무사 등

Holland의 이론을 요약하면 개인의 행동은 인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함수이며 개인선택행동은 그의 인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성 유형을 표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Holland가 제시한 직업행동과 적응유형의 이론에는 다양한 직업의 영역 및 각 직업의 범주에 따르는 개인의 흥미, 가치관, 대인관계기술, 성격특성 등 개인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Holland의 이론에 기초해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에서 적합한 작업환경 및 직업수준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다. Super의 진로발달 이론

Super(1953)의 이론은 Ginzberg의 이론을 비판 보완한 것이다. 직업행동에 대한 Super의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아개념이론이다. 최근에 그는 자아개념 이론을 개인이 자신의 속성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연결시켜 주는 이론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아개념이론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인성적 혹은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구분하였다(김충기, 1995). 즉, 그에 의하면 직업발달 이론은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유형, 부모와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 진로유형 발달의 지도 가능성, 진로유형의 역동성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업발달이란 결국 선택과 적응이 상호 관련된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일부는 심리적, 생리적 속성에 의해, 그리고 다른 일부는 의미 있는 타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인간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직업발달을 계속해 나간다고 전제하였다. 그의 이론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으로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Super는 개인의 진로발달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장기(growth stage : 출생-14세)

이 시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참여의 현실경험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는 단계로서 환상기(0-4세), 흥미기(11-12세), 능력기(13-14세)로 세분화된다.

(2) 탐색기(exploration stage : 15-24세)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한다.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및 직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시기로서, 잠정기(15-17세), 전환기(18-21세), 시행기(22-24세)로 구분된다.

(3)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 25-44세)

이 시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거기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로서, 다시 시행기(25-30세)와 안

정기(31-44세)로 구분한다.

(4) 유지기(maintenance stage : 45-64세)

이 시기에 개인은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5) 쇠퇴기(decline stage : 65세 이후)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여 직업세계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단계 중 Super와 그의 동료들은 특히 탐색기와 확립기의 진로 발달을 중요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개인이 좋아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직업 발달의 단계와 더불어 직업적 발달 과업으로 알려진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하여 직업적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제안한 바 있는데, 발달 과업은 <표 2-3>과 같다.

<표 2-3> Super의 직업발달 과업

직업적 발달 단계	나이	일반적 특징
결정화 (crystallization)	14-18세	좋아하는 직업을 위한 자원, 유연성, 흥미, 가치, 그리고, 계획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일반적 직업 목표를 공식화하는 인지적 과정의 시기
전문화 (specification)	18-21세	잠정적인 직업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로 옮겨가는 시기
실행화 (implementation)	21-24세	직업 훈련을 완성하고 직장에 진입하는 시기
안정화 (stabilization)	24-35세	적절한 것으로 진로 선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제적 직업 경험과 능력을 사용하여 직업을 확인하는 시기
통합화 (consolidation)	35세이후	진로, 지위, 그리고 선임자로서 안정적인 시기

이상의 제 이론에서 보면 고등학생은 Ginzberg의 직업 선택 이론에서는 잠정기 단계(11-17세) 중에서 가치단계(15-16세)와 전환단계(17-18세)에 속하고, Super의 직업 발달 이론에서는 잠정기(15-17세)와 전환기(18-21)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해서 점차 현실적인 외적 요인들로 관심을 돌리고 중요시하게 되므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 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타협해서 바람직한 진로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해야겠다.

3.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전에 따르면 전문직은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공중에 대한 신념, 자기규제(self-regulation)신념, 소명의식(sense of calling), 전문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지녀야 하고, 특수한 능력(special competence)과 기술(techniques), 실천가((practicers),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녀야 한다” 라고 정의내리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 또한 미국 사회복지사업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NASW)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사업사전에서는 “전문직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치(values), 기술(skills), 기능(techniques) 지식(knowledge)과 신념(beliefs)의 체계” (Barker, 1995)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을 원조하여 인간과 그 환경이 보다 나은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전문적인 실천 활동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속성을 Greenwood는 전문적인 수행하는 기술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 이론을 갖추며 서비스 공급의 결정이 전문직 권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체적 규범체계인 윤리강령이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고유한 가치, 규범, 상징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김태성, 1998).

Austin(1981)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을 들면서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신현경(2001)은 전문직의 제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전문직업과 비전문 직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해당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은 이와 부합되는 체계적 이론의 전달과 훈련의 습득을 통해 직무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전문단체를 통해 전문적 가치규범과 상징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적 문화를 형성한다. 넷째, 전문직은 사회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행동과학 그리고 인간과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전문적 실천경험으로부터 도출한 조사를 바탕으로 독특한 관점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이론은 인간행동에 대한 기술 및 성명, 인간행동 문제의 발생원인, 사회복지의 배경지식이 되며 대부분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문화 인류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가져왔고, 인간발달, 성격, 가족체계, 사회화 조직의 기능, 정치권력 등과 관련된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이효선, 2003). 이처럼 사회복지의 검증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인간이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전문화된 지식과 과학기술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권위 강화에 기여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직 서비스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권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김효선, 2004).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학교육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체계적 이론전달과 훈련 및 현장을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의 전문직 구성요소를 습득하며,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사회복지사 각자의 전문성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김예경, 2000) 때문에 중요하다.

4. 진로선택의 영향요인

진로선택이란 일과 직업세계가 중심이 되는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인식, 탐색하여 각자의 적성, 능력에 알맞게 일을 지각하고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알맞은 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로계획은 자기의 삶의 목표와 능력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하여야 한다.

진로선택이란 결국 직업선택과정이 핵심이 되므로 장차 어떠한 직업인이 될 것인가 하는 직업결정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선택의 과정은 ①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② 관련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원활히 하며, ③ 가능하면 직업을 열거하여 각 직업에서의 성취가능성을 예측하고, ④각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과 가치평가를 한 다음, ⑤직업의 선택으로 들어가야 한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현림(1973)은 신체적 요인,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정근(1992)은 능력 요인, 직업적 흥미, 인성, 학력, 가정 배경, 경제, 신체적 조건, 학교를 요인으로 들고 있다. 김충기(1989)는 주관적 요인으로서 인생관, 가치관, 욕구, 태도, 자아개념, 이상 등을 들고 있고, 개관적 요인으로 연령, 성, 지능, 적성, 흥미, 성격, 성취동기, 학업성적, 신체조건등을 들고 있다. 그 외에 사회, 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의 직업 및 학력, 부모의 기대, 종교, 가치관, 직업의 근무조건, 보수, 기회전망 등을 들고 있다. Tolbert(1980)는 직업적성, 직업적 흥미, 인성, 성취도, 가족과 가정, 경제적 요인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요인들을 참고하여 진로 선택에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크게 신체적 요인,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신체적 요인

체구, 색맹, 성별, 적성 등이 신체적 요인이다. 체구는 유전에 의한 신체적 구조로 거의 통제할 수 없으므로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화가, 의사, 기사와 같은 직업은 아무리 선천적 소질이 풍부하더라도 색맹일 경우 택할 수 없다. 성별에 따른 진로선택은 남녀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Holland(1959)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안정성은 그 직업이 성별의 역할에 적합할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체적 요인에서의 적성은 손재주와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하지만 신체적 요인 그 자체가 진로 선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다만 개인이나 사회에서 신체적 요인이 진로발달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달려 있다.

나.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흥미, 적성, 욕구, 감정 그리고 가치 등이 심리 및 정서적 요인이다. 이 요인들은 직접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리적 욕구는 언제나 신체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상호 관련이 있다. 예컨대 안전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자극적인 충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와 같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다.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주로 가정 배경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가치관, 직업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학생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Roe(1957)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성장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많은 봉사적인 직업을, 부모의 무관심과 배척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적은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인간관계 형성도 유형, 무형으로 자녀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니고, 생활의 양식이며 사회적 임무라는 것을 엄두 해 두어야 한다.

라. 직업적 요인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는 그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뿐더러 불안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이 때 필요한 정보로는 직업 특성, 직업 조건, 취업 전망, 임금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제 3절 선행연구

1. 현장실습요인에 관한 연구

실습기관에서 실습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물로 집기, 전화, 사물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노상학, 1994), 공동연구에서 실습장소와 비품, 예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덧붙여 이러한 자원의 미비와 부족은 효과적인 실습교육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로부터 기관에서 실습생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수준이 실습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직업의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숙련 형성에 미치는 각종 교육과 훈련의 효과(유동철, 1998)를 비교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정규교육연수와 상사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숙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상사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비록 연구가 학생들 중심이 아닌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은 현장에서 견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하였다.

사회사업 교육목표 성취에 부합되는 실습 지도를 위해 실습기관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하여 학생이 아닌 실습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지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실태조사(박미정, 2000)를 하였다. 그는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습지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해 얼마만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하면서 전문성 있는 실습지도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인 실습 지도를 위해서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에 대한 사전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습 슈퍼비전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고 실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실습기관, 실습내용, 실습지도자, 실습생)과의 관련성을 연구(김선화, 2002)하여 실습 슈퍼비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적 슈퍼비전의 경우와 슈퍼비전 형태 중 개별과 집단 슈퍼비전을 모두 제공 받을 때 실천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특히 실습지침서의 유무에 따라 실습체계 구성요소들의 실천수준을 나타냈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습모델 및 실습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에 대한 내용과 만족감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성 향상 인식내용, 수퍼비전 만족감과 전문성 향상간의 관계(김진, 2003)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는 수퍼비전 만족감은 수퍼바이저보다는 수퍼바이저가 더 높았으며, 수퍼비전 만족감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퍼비전의 기능 중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념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실습과 관련(강희자, 2003)한 여러 특징과 과제를 규명해보자고 학교, 기관, 학생 등 실습의 중요요소들 모두를 조사하였으며, 실습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인자로 학교의 역할, 학생의 역할, 기관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도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조사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고, 차별적인 실습교육 및 실습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실습내용과 중요요소들을 파악하는 단계에만 그쳤을 뿐 이러한 실습만족도가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의 사회복지 정체성 혹은 장래직업 선택 등에 대한 영향, 다시 말해 실습의 만족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지도 실태 및 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수경, 2004)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퍼비전과 실천수행능력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수퍼비전 요인(그 중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에 대한 지도)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습계약에 대한 논의로 나타났다. 그 외 실습생이 여성일 경우,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수퍼바이저로서의 경력이 적을수록 실천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2.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선택)에 대한 대학생의 제 요인별(성, 학년, 전공에 따른)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Osipow et al, 1976; Taylor, 1979; Westbrook, Sanford, O'Neal, Horne, Fleenor & Garren, 1985)에서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전공영역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Osipow et al, 1976)등에서도 일괄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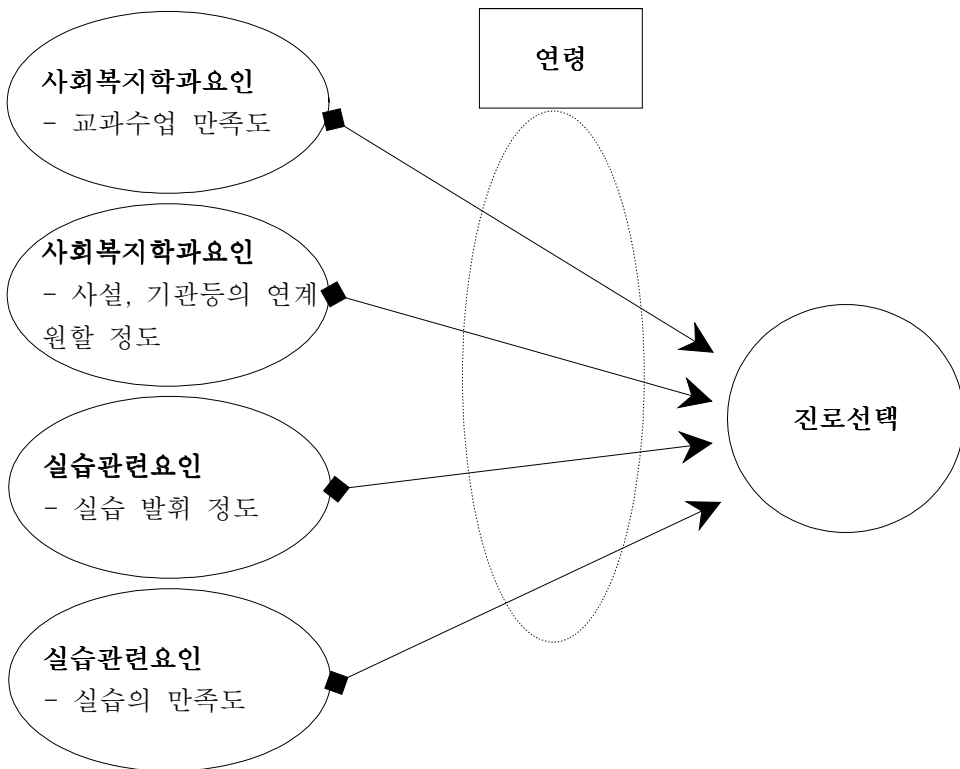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관한연구(김봉환, 1996; 장기명, 1998 - 여학생 집단 우세 / 고향자, 1992; 허자영, 1996; 김순정, 2000; 김은진, 2001; 박수길, 2001; 조영, 2003 - 남학생 집단우세 / 양승민, 2003; 송경주, 2003; 조경애, 2006 -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에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대학생들의 성별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학년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김계현 외, 1997; 진미경, 1999; 이주희, 2004)이거나, 학년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송경주, 2003; 이선영, 2004; 장선량, 2004)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나 연령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도 관한 차이에 관한 연구(장기명, 1998; 이제경, 1997; 고향자, 1992; 김봉환, 1997; 이선영, 2004)에서도 일관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진로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을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변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진로지도의 중요한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과정에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제는 개인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에 있어 실습은 진로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이라 하겠다.

제3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모형

사회복지학과의 관련 요인, 실습에 관한 요인과 진로선택으로 나누었다. 사회복지학과의 관련 요인은 교과수업 만족도, 기관 등 연계를 원하는 정도, 사회복지학과의 실습에 관한 요인은 실습 발휘 정도와 실습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이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림 2-1> 연구모형

제 2절 연구가설

<그림 2-1>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마친 후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에 따라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에 따라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현장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많은 항목에 답을 하지 않았거나 답을 했더라도 특정 숫자에만 일률적으로 체크하는 것과 같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6부를 뺀 후 28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에 대한 표본의 특성은 <표 4-1>과 같다.

2. 표본특성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수는 284명으로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48명(16.9%), 여자 236명(83.4%)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10대 6명(2.1%), 20대 88명(31.0%), 30대 62명(21.8%), 40대 94명(33.1%), 50대 34명(12.0%)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기관 74명(26.1%),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94명(33.1%),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50명(17.6%)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이유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 126명(44.4%),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54명(19.0%), 성적에 맞추다 보니 4명(1.4%),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50명(17.6%), 타인을 돕고 싶어서 30명(10.6%), 종교적인 이유로 12명(4.2%), 기타 8명(2.8%)으로 나타났다. 실습장소의 기준으로는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136명(47.9%), 부모님 친인척 소개로 18명(6.3%),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92명(32.4%), 마땅한 곳이 없어 아무 곳이나 16명(5.6%), 기타 22명(7.7%)으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자	48	16.9
	여 자	236	83.1
	결측값	0	0
	계	284	100.0
연 령	10대	6	2.1
	20대	88	31.0
	30대	62	21.8
	40대	94	33.1
	50대	34	12.0
	결측값	0	0.0
	계	284	100.0
실습기관	종합사회복지기관	74	26.1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94	33.1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50	17.6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40	14.1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16	5.6
	정시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2	0.7
	협회, 재단	6	2.1
	정책, 연구기관	2	0.7
	결측값	0	0.0
	계	284	100.0

<표 4-1> 표본의 특성 (계속)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전공 선택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126	44.4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54	19.0
	성적에 맞추다 보니	4	1.4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50	17.6
	타인을 돕고 싶어서	30	10.6
	종교적인 이유로	12	4.2
	기타	8	2.8
	결 측 값	0	0.0
	계	284	100.0
실습기준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136	47.9
	부모님 및 친인척 소개로	18	6.3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92	32.4
	마땅한 곳이 없어 아무 곳이나	16	5.6
	기타	22	7.7
	결 측 값	0	0.0
	합계	284	100.0

제 2 절 측정도구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도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하여 높였으며, 축소된 요인의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으로 제고시켰다. 타당성과 신

뢰성이 확인된 측정항목을 변수에 따라 합산 평균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1. 타당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있는데 예비조사의 결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의 변수들을 확인하였고 설문을 재구성한 후 다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관련된 문헌 고찰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여 요인들을 추출해 내기는 하지만 분석의 초점은 추출해 낸 요인들이 과연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있다(이학식·임지훈, 2007).

본 연구의 타당도 측정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SPSS의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값은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값이 1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 적재값의 유의성 기준은 보통 0.30이상이면 유의하지만 보수적으로는 0.40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0.50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본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5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전체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1에 어느 정도 가까운 0.778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값은 2571.998, 자유도는 300으로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000으로 전체 적재값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적재값을 산출하여 <표 4-2>와 같이 행렬로 표시하였다.

<표 4-2> 요인적재값 행렬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교과만족	v1	.614				
	v2	.688				
	v3	.764				
	v4	.679				
	v5	.619				
2. 기관연계	v6		.807			
	v7		.648			
	v8		.809			
3. 실습만족	v9			.753		
	v10			.688		
	v11			.686		
	v12			.814		
	v13			.807		
4. 발휘정도	v14				.640	
	v15				.681	
	v16				.648	
	v17				.644	
5. 진로선택	v18					.825
	v19					.640
	v20					.639
	v21					.716
<i>eileen value</i>		2.554	1.722	3.352	1.722	2.332
분산비율(%)		10.217	6.888	13.407	6.888	9.329
누적비율(%)		10.217	17.105	30.512	37.400	46.729

<표 4-3>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먼저 카이제곱값 590.104, 자유도 179, χ^2 에 대한 p값 0.00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 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적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측정변수에 대한 표준요인 부하량이 0.70이상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원소간평균차이(RMR)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근사오차자승평균이중근(RMSEM)은 0.08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 값
1. 교과만족	v1	.775	.769	.087	8.876***
	v2	.879	.745	.127	6.906***
	v3	.778	.713	.085	7.981***
	v4	1.144	.745	.095	12.037***
	v5	1.000	.770	-	-
2. 기관연계	v6	.700	.732	.176	.5481***
	v7	.757	.762	.203	.6600***
	v8	1.000	.761	-	-
3. 실습만족	v9	.703	.703	.082	6.151***
	v10	1.153	.764	.104	11.137***
	v11	.812	.789	.092	8.853***
	v12	1.157	.764	.107	10.825***
	v13	1.000	.703	-	-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계속)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 값
4. 발휘정도	v14	1.710	.721	.331	5.174***
	v15	2.019	.719	.377	5.363***
	v16	2.008	.720	.388	5.173***
	v17	1.000	.738	-	-
5. 진로선택	v18	.717	.772	.119	5.178***
	v19	1.120	.775	.131	8.547***
	v20	.799	.703	.119	5.553***
	v21	1.000	.707	-	-
모형적합도 지수		■(179)= 590.104, p= .000, GFI= .907, RMR= .048, NFI= .903, RFI= .901, IFI= .907, CFI= .908, AGFI= .904, RMSEM= .076			

2. 신뢰도분석

신뢰도(degree of confidence)란 동일한 대상(목적물)이나 현상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측정항목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방법은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의 신뢰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값은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바람직한 Cronbach α 계수 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alpha=0.6$ 이상이면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뢰도 분석결과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

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에 대한 측정 항목의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0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변수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4> 신뢰도 분석

변 수 명	항목수	Cronbach Alpha
교과만족	5	.604
기관연계	3	.645
실습만족	5	.771
발휘정도	4	.653
진로선택	4	.626

제 3 절 차이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왜도(Sk)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¹의 값과 음(-)²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값들이 양(+)¹의 값의 경우에는 왼쪽에 모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측값들이 좌우로 늘어뜨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왜도를 통하여 관측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왜도에 대하여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는 $Sk = 0$ 이 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간주되는 Sk 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Sk > +1.0$ 이거나 $Sk > -1.0$ 일 때는 정규분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표 4-5>에 따르면, 교과만족은 평균 2.7441, 왜도 -.211, 첨도 -.425로 나타났고, 기관연계는 평균 2.6080, 왜도 -.011, 첨도 -.310으로 나타났다. 실습만족은 평균 2.9549, 왜도 .039, 첨도 .512로 나타났고, 발휘정도는 평균 2.4930, 왜

도 .004, 첨도 .237로 나타났으며, 진로선택은 평균 2.6320, 왜도 -.196, 첨도 -.060으로 나타났다. 합산평균의 분포 특성을 보면 교과만족과 기관연계, 진로선택 항목들의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실습만족, 발휘정도는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주로 왼쪽에 모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꼬리모양의 분포를 가진다.

<표 4-5> 기술통계량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과만족	①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싶음	2.4437	.9325	.323	-.332
	②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음	3.0845	1.3528	-.172	-1.133
	③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편	2.8873	.9061	.052	.089
	④ 귀하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함	2.5563	.9913	.062	-.697
	⑤ 귀하의 수업 전공교과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2.7324	.8890	.005	-.099
	소 계	2.7441	.5596	-.211	-.425
기관연계	①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전과를 생각해 보았음	3.1972	1.3090	-.160	-1.196
	② 사회복지수업이 이론보단 실습이 더 늘었으면 좋겠음	2.7817	1.0303	.292	-.516
	③ 사회복지학과는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음	1.8451	.8679	-.828	.297
	소 계	2.6080	.6356	-.011	-.310
실습만족	① 사회복지실습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함.	2.4225	.8264	-.015	-.556
	② 사회복지 실습만으로도 사회에 나가 실무에 활용 할 수 있음	3.1408	.9988	.014	-.465
	③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3.1479	.9127	.096	.123
	④ 실습의 사정 및 기술을 배우고 면접까지도 학습 할 수 있음	3.2254	1.0391	-.120	-.518
	⑤ 실습의 업무량과 귀하의 실천적 기술이나 이론에 적절했음	2.8380	.9333	.276	.125
	소 계	2.9549	.6827	.039	.512

<표 4-5> 기술통계량 (계속)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발 휘 정 도	①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음	2.9014	.8680	-.134	-.122
	②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2.5634	.8854	-.194	-.671
	③ 귀하는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함	2.4577	1.0201	.357	-.097
	④ 귀하의 실습기관에서 제시한 커리큘럼(실습일정, 과제)을 성실히 수행함	2.0493	.9310	.695	.173
	소 계	2.4930	.6497	.004	.237
진 로 선 택	① 실습 이후,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함.	2.8310	1.0894	.307	-.445
	② 실습이후,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봄	2.4648	.9485	.152	-.674
	③ 실습이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교수, 친구, 부모님과 함께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음	2.7394	1.1383	.323	-.731
	④ 실습이후, 생각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한 가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를 선택할 수 있음	2.4930	1.0814	.305	-.502
	소 계	2.6320	.5852	-.196	.060

2.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성별, 연령, 실습기관, 전공 선택 이유, 실습기관기준에 따라 어떠한 인식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성별에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산분석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연령, 실습기관, 전공 선택 이유, 실습기관 기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T-검정

<표 4-6>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라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성별에 따른 T-검정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P
변 수	성 별				
교과만족	남 자	2.7569	.4455	.174	.862
	여 자	2.7415	.5808		
기관연계	남 자	2.8056	.5407	2.382	.018
	여 자	2.5678	.6469		
실습만족	남 자	2.9583	.4915	.048	.962
	여 자	2.9542	.7162		
발휘정도	남 자	2.5521	.6187	.691	.490
	여 자	2.4809	.6565		
진로선택	남 자	2.7708	.5598	1.810	.071
	여 자	2.6038	.5873		

* : $p < 0.05$ ** : $p < 0.01$

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표 4-7>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연령에 따른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교과만족은 F 값 4.165, P 값 .003 으로 대학(원)생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만족은 20대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연 령				
교과만족	10대	2.6667	.7888	4.165	.003**
	20대	2.8977	.4551		
	30대	2.8118	.4367		
	40대	2.5816	.5895		
	50대	2.6863	.7496		
	합 계	2.7441	.5596		
기관연계	10대	2.5556	.3442	2.221	.067
	20대	2.5758	.5822		
	30대	2.4731	.6141		
	40대	2.6383	.6731		
	50대	2.8627	.6871		
	합 계	2.6080	.6356		
실습만족	10대	2.6667	.2732	2.082	.083
	20대	2.8664	.6757		
	30대	2.9484	.6696		
	40대	3.1021	.7360		
	50대	2.9176	.5573		
	합 계	2.9549	.6827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계속)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연 령				
발휘정도	10대	2.0833	.6831	1.019	.398
	20대	2.4830	.7058		
	30대	2.5806	.6936		
	40대	2.5000	.6156		
	50대	2.4118	.4762		
	합 계	2.4930	.6497		
진로선택	10대	3.0833	.3415	2.283	.061
	20대	2.6932	.5410		
	30대	2.6774	.5169		
	40대	2.5106	.6699		
	50대	2.6471	.5439		
	합 계	2.6320	.5852		

* : $p < 0.05$ ** : $p < 0.01$

다. 실습기관에 따른 차이분석

<표 4-8>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실습기관에 따른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 $F_{값}$ 2.056, $P_{값}$.048, 기관연계 $F_{값}$ 2.841, $P_{값}$.007, 진로선택 $F_{값}$ 2.255, $P_{값}$.030으로 실습기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만족, 기관연계는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선택은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 실습기관 차이검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실 습 기 관				
교과만족	종합사회복지관	2.0982	.5784	2.056	.048*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6454	.5450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7667	.5734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2.9333	.5130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2.9375	.4031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2.8333	.0000		
	협회, 재단	2.6111	.8210		
	정책, 연구기관	3.5000	.0000		
	합 계	2.7441	.5596		
기관연계	종합사회복지관	2.4595	.6544	2.841	.007**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6099	.6272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6667	.5471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2.7000	.6743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2.9583	.6309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3.0000	.0000		
	협회, 재단	2.0000	.2981		
	정책, 연구기관	3.3333	.0000		
	합 계	2.6080	.6356		
실습만족	종합사회복지관	2.8432	.7507	.932	.482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3.0043	.6655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3.0560	.7217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3.0300	.7053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2.7250	.3087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2.8000	.0000		
	협회, 재단	2.8000	.1788		
	정책, 연구기관	3.2000	.0000		
	합 계	2.9549	.6827		

<표 4-8> 실습기관 차이검증(계속)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실습기관				
발휘정도	종합사회복지관	2.3986	.7366	1.426	.194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4681	.5857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5400	.6047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2.6250	.7183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2.3750	.6055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2.5000	.0000		
	협회, 재단	2.7500	.2236		
	정책, 연구기관	3.5000	.0000		
	합 계	2.4930	.64978		
진로선택	종합사회복지관	2.6419	.6711	2.255	.030*
	노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5691	.5577		
	장애인관련복지관 및 시설	2.6100	.5490		
	아동관련복지관 및 시설	2.6500	.5334		
	청소년관련복지관 및 시설	2.6250	.3415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	3.0000	.0000		
	협회, 재단	3.0000	.6708		
	정책, 연구기관	4.0000	.0000		
	합 계	2.6320	.5852		

* : $p < 0.05$ ** : $p < 0.01$

라.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차이분석

<표 4-9>는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 $F_{값}$ 7.945, $P_{값}$.000, 발휘정도 $F_{값}$ 4.248, $P_{값}$.000, 진로선택 $F_{값}$ 2.282, $P_{값}$.036으로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만족은 주변사람들의 권유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휘정도, 진로선택은 기타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9>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차이검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전공 선택 이유				
교과만족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2.5608	.5166	7.945	.000**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2.9938	.4635		
	성적에 맞추다 보니	2.8333	.1924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3.0467	.5051		
	타인을 돕고 싶어서	2.5889	.7450		
	종교적인 이유로	2.6667	.3015		
	기 타	2.7083	.4058		
	합 계	2.7441	.5596		
기관연계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2.6614	.6653	1.204	.305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2.6296	.6165		
	성적에 맞추다 보니	2.6667	.3849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2.5733	.6210		
	타인을 돕고 싶어서	2.3333	.5104		
	종교적인 이유로	2.7222	.6168		
	기 타	2.6667	.8357		
	합 계	2.6080	.6356		

<표 4-9>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차이검증(계속)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전공 선택 이유				
실습만족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2.8730	.6686	1.454	.194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2.9778	.6126		
	성적에 맞추다 보니	2.6000	.0000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3.1200	.7137		
	타인을 돕고 싶어서	2.9467	.7219		
	종교적인 이유로	2.9000	.8067		
	기 타	3.3500	.8332		
	합 계	2.9549	.6827		
발휘정도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2.3294	.5419	4.248	.000**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2.6944	.7375		
	성적에 맞추다 보니	2.7500	.2886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2.5700	.6329		
	타인을 돕고 싶어서	2.4500	.6960		
	종교적인 이유로	2.5417	.5312		
	기 타	3.1875	.9887		
	합 계	2.4930	.6497		
진로선택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2.5357	.5017	2.282	.036*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2.7778	.5961		
	성적에 맞추다 보니	3.0000	.0000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2.6500	.7034		
	타인을 돕고 싶어서	2.6333	.5935		
	종교적인 이유로	2.5000	.6742		
	기 타	3.0625	.6087		
	합 계	2.6320	.5852		

* : $p < 0.05$ ** : $p < 0.01$

마. 실습기준에 따른 차이분석

<표 4-10>은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실습기준에 따른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 $F_{값}$ 4.873, $P_{값}$.001, 기관연계 $F_{값}$ 6.675, $P_{값}$.000, 발휘정도 $F_{값}$ 6.314, $P_{값}$.000, 진로선택 $F_{값}$ 2.792, $P_{값}$.027로 실습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만족, 기관연계, 발휘정도, 진로선택은 실습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실습기준에 따른 차이검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실 습 기 준				
교과만족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2.7230	.5417	4.873	.001**
	부모님 및 친인척 소계로	2.9630	.4628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선택	2.7101	.5540		
	마땅한 곳이 없어서	3.2083	.3726		
	기타	2.5000	.6745		
	합 계	2.7441	.5596		
기관연계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2.6716	.6529	6.675	.000**
	부모님 및 친인척 소계로	3.1111	.6666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선택	2.3913	.5150		
	마땅한 곳이 없어서	2.7917	.7876		
	기타	2.5758	.5263		
	합 계	2.6080	.6356		

<표 4-10> 실습기준에 따른 차이검증(계속)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P
변 수	실 습 기 준				
실습만족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2.9676	.7291	1.644	.163
	부모님 및 친인척 소개로	2.9778	.5936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선택	2.9348	.6735		
	마땅한 곳이 없어서	3.2750	.3855		
	기타	2.7091	.6007		
	합 계	2.9549	.6827		
발휘정도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2.4154	.6230	6.314	.000**
	부모님 및 친인척 소개로	2.8056	.5787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선택	2.5054	.6365		
	마땅한 곳이 없어서	3.0938	.4269		
	기타	2.2273	.7516		
	합 계	2.4930	.6497		
진로선택	학교 및 동료들의 추천으로	2.5846	.6003	2.792	.027*
	부모님 및 친인척 소개로	2.9167	.2425		
	실습기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선택	2.5924	.5797		
	마땅한 곳이 없어서	2.9688	.5836		
	기타	2.6136	.6110		
	합 계	2.6320	.5852		

* : p < 0.05 ** : p < 0.01

제 4 절 연구모형 검증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의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5개의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하나의 변수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의 성격은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상관관계계수는 두 변수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측정치가 아닌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의 비율이나 백분율과는 다르다.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 표시해 주는 지수가 상관계수이다. 상관계수 r 은 「 $-1 \leq r \leq +1$ 」의 값을 갖고 측정된 데이터가 좌표 상에 정(+)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이 상관계수는 정(+)의 상관계수를, 그리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또한 선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 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는 <표 4-1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실습만족과 발휘정도의 상관관계가 0.5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과만족과 기관연계의 상관관계가 0.0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과만족과 기관연계는 변수 간 상관관계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 문항간의 상관관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교과만족	기관연계	실습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
교과만족	2.7441	.5596	1.00				
기관연계	2.6080	.6356	.001	1.00			
실습만족	2.9549	.6827	.232**	.161**	1.00		
발휘정도	2.4930	.6497	.410**	.136*	.596**	1.00	
진로선택	2.6320	.5852	.331**	.277**	.200**	.382**	1.00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 연구모형 검증

가.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4.0과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기존의 자료 속에 존재하는 연구모형을 발견하는 탐색적 요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가설분석모형이 표본자료에 대응하여 얼마나 지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확인적 요인분석방식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인과관계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다음 그 효과를 기술하고 설명된 분산과 설명되지 않은 분산을 구분하여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공분산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이라고 부른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일련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동시에 보여주면서 검토 및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하나의 자료 분석 구조에 통합한 형태이다. 즉 하나의 원인변수는 또 다

른 설명 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원적인 개념모형이 동시에 이루어져 서로 간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모형의 발전과정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값(χ^2)을 비롯하여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과 같은 절대적합지수와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등의 증대적합지수, 그리고 간명기초적합지수로서 PG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나. 연구모형 검증

먼저 카이제곱값 590.104, 자유도 179, χ^2 에 대한 p값 0.000으로 카이제곱값(χ^2)과 자유도, 그리고 p값만으로 볼 때는 유의한 값이 되어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값(χ^2)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p=0.000$)이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적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원소간 평균차이(RMR)는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근사오차자승평균이중근(RMSEM)은 0.08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비 교 기 준	권 장 수 준	적 합 지 수
절대적합지수		
· 카이제곱값(χ^2)		590.104
· 자유도		179
· p	p > 0.05	.000
· GFI(기초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7
· AGFI(조정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4
· RMR(원소간평균차이)	0.05이하	.048
· RMSEM (근사오차자승평균이중근)	0.08이하	.078
증대적합지수		
· NFI(표준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2
· IFI(증대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7
· CFI(비교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5
간명적합지수		
· PGFI(간명기초적합지수)	0.6이상	.902

제 5 절 가설 검증

1.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하여 얻은 표본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내생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를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경로계수 .016, t값 .106, p값 .915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만족도는 진로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의 검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경로계수 .028, t값 .565, p값 .572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이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진로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의 검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경로계수 .874, t값 4.171, p값 .000으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의 검증 결과이다. 검증결과 경로계수 1.355, t값 3.678, p값 .000으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가설 검증결과 <표 4-13>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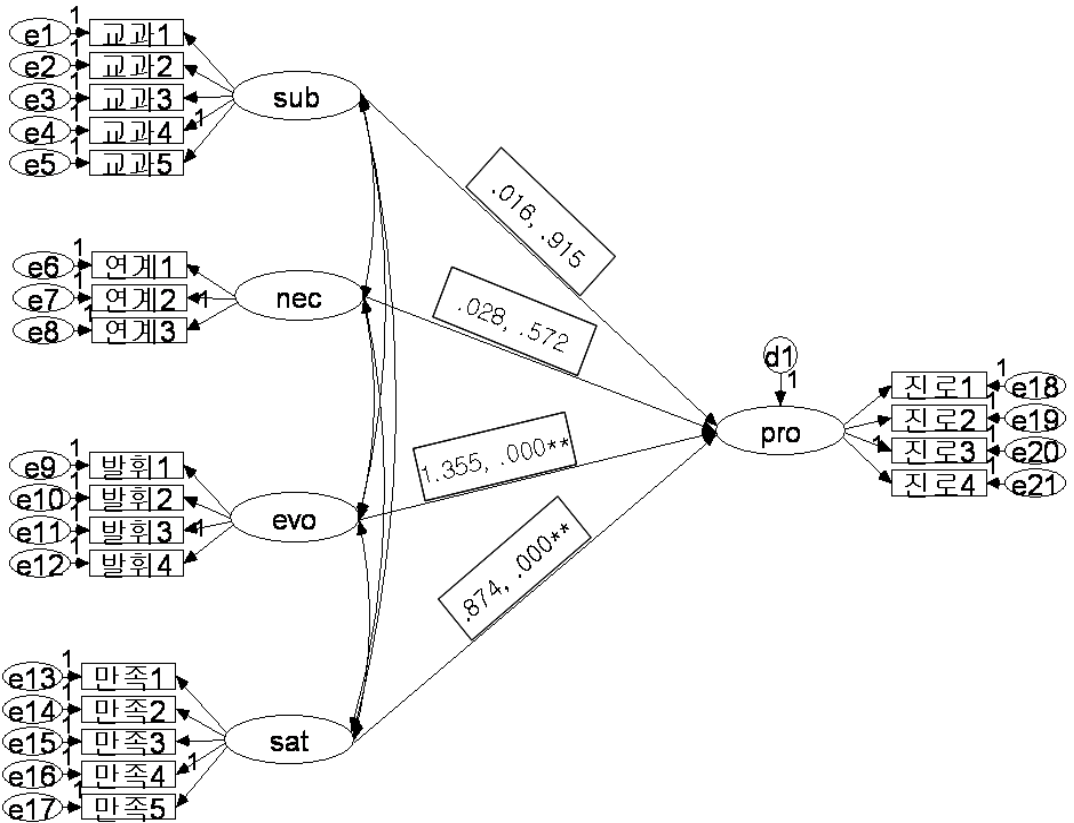
<표 4-13>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경로계수		표준 오차	<i>T</i>	<i>P</i>	채택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 교과만족 → 진로선택	.015	.016	.143	.106	.915	기각
2. 기관연계 → 진로선택	.130	.028	.230	.565	.572	기각
3. 실습만족 → 진로선택	.866	.874	.208	4.171	.000	채택
4. 발휘정도 → 진로선택	2.823	1.355	.767	3.678	.000	채택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4-1>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와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위정도와 실습의 만족도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연구모형 검증 결과



1. 경로계수(t-검정)

2. * : $p < 0.05$ ** : $p < 0.01$

3. sub : 교과만족, nec : 기관연계, sat : 실습만족, evo : 발취정도, pro :
진로선택

2. 조절효과분석 결과

가.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 변수들이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14>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4> 연령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비 교 기 준	권 장 수 준	적 합 지 수
절대적합지수		
· 카이제곱값(χ^2)		1002.711
· 자유도		358
· p	p > 0.05	.000
· GFI(기초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7
· AGFI(조정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4
· RMR(원소간평균차이)	0.05이하	.016
· RMSEM (근사오차자승평균이중근)	0.08이하	.080
증대적합지수		
· NFI(표준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3
· IFI(증대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8
· CFI(비교적합지수)	1의 근사치	.906
간명적합지수		
· PGFI(간명기초적합지수)	0.6이상	.901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이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을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파악한 단순기준에서는 30세 미만에서 교과만족(경로계수 .349, p 값 .017)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세 이상에서 교과만족(경로계수 4.009, p 값 .780)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과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을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파악한 단순기준에서는 30세 미만에서 기관연계(경로계수 .112, p 값 .732)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세 이상에서도 기관연계(경로계수 5.245, p 값 .821)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연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3-1>을 검증한 결과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을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파악한 단순기준에서는 30세 미만에서 실습만족(경로계수 .675, p 값 .033)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세 이상에서는 실습만족(경로계수 5.657, p 값 .828)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3-1>을 검증한 결과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을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파악한 단순기준에서는 30세 미만에서 발휘정도(경로계수 1.120, p 값 .023)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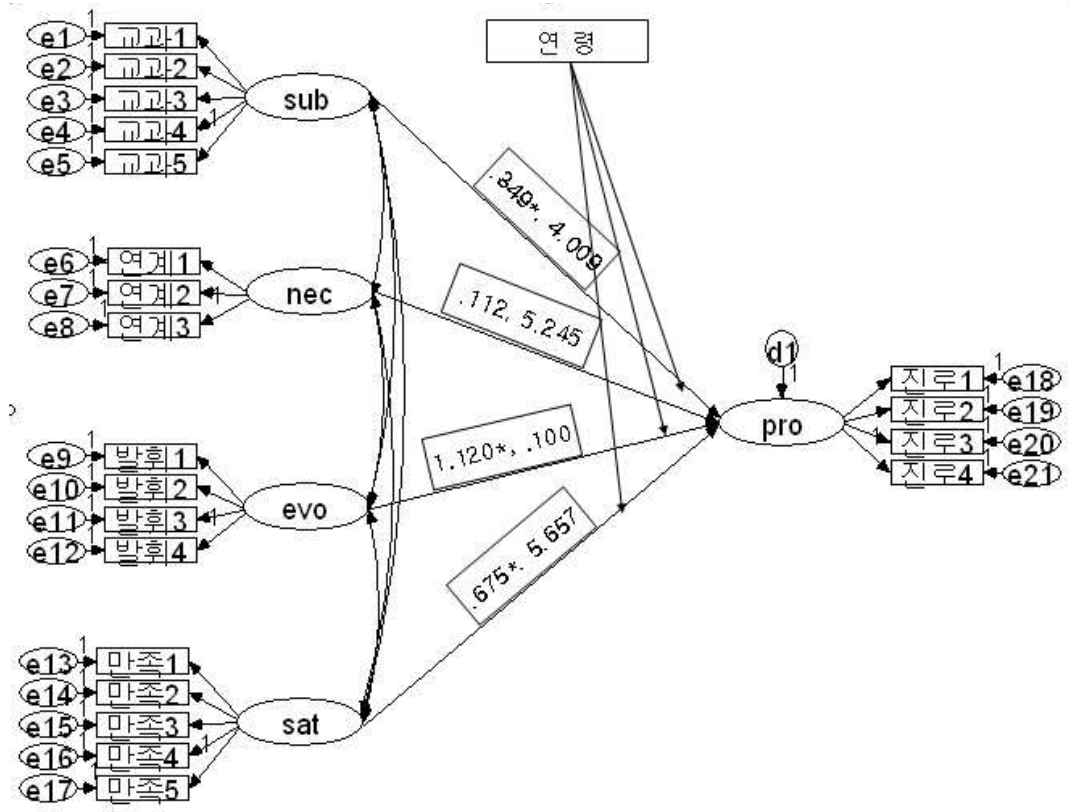
다. 31세 이상에서는 발휘정도(경로계수 .100, p 값 .966)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연령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30세 미만	31세 이상	30세 미만	31세 이상	30세 미만	31세 이상	30세 미만	31세 이상	
1-1. 교과만족 → 진로 선택	.349	4.009	2.905	.280	.017	.780	채택	기각	있음
2-1. 기관연계 → 진로 선택	.112	5.245	.343	.226	.732	.821	기각	기각	없음
3-1. 실습만족 → 진로 선택	.675	5.657	2.134	.217	.033	.828	채택	기각	있음
4-1. 발휘정도 → 진로 선택	1.120	.100	2.735	.043	.023	.966	채택	기각	있음

<그림 4-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와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정도, 실습의 만족도의 변수들이 연령에 따라 종속변수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었고,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와 실습발휘정도에 따라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 4-2> 연령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30세미만/31세이상), p값(* : $P < 0.05$ ** : $P < 0.01$))
2. sub : 교과만족, nec : 기관연계, sat : 실습만족, evo : 발취정도, pro : 진로선택

제 6 절 분석결과 논의

1. 차이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C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성별, 연령, 실습기관, 전공 선택 이유, 실습기관기준에 따라 어떠한 인식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성별에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산분석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연령, 실습기관, 전공 선택 이유, 실습기관 기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모든 변수에 대해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모든 변수에 대해 연령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교과만족은 대학(원)생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지 등 교과만족은 대학(원)생의 연령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셋째, 모든 변수에 대해 실습기관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과 기관연계, 진로선택이 실습기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지 등 교과만족,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전과를 생각해 보았는지, 사회복지수업이 이론보단 실습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든지, 사회복지학과는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등 기관연계, 실습이후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였는지, 실습이후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의 여부, 실습이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교수, 친구, 부모님과 함께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지 등 진로선택은 실습기

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모든 변수에 대해 대학(원)생의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지,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지 등 교과만족, 실습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지,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등 발휘정도, 실습이후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였는지, 실습이후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의 여부, 실습이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교수, 친구, 부모님과 함께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등 진로선택은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섯째, 모든 변수에 대해 대학(원)생의 실습기준에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과만족, 기관연계, 발휘정도, 진로선택은 실습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지,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지 등 교과만족,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전과를 생각해 보았는지, 사회복지수업이 이론보단 실습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든지, 사회복지학과는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등 기관연계, 실습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지,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등 발휘정도, 실습이후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였는지, 실습이후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의 여부, 실습이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교수, 친구, 부모님과 함께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등 진로선택은 실습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내생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를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f^2)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 변수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검증한 결과 기각되었다. 즉,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교과수업만족도는 진로선택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 결과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과 요인의 시설, 기관 등이 연계를 원하는 정도는 진로선택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 결과 채택되었다. 즉, 사회복지 실습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하고, 사회복지실습만으로도 사회복지실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 결과 채택되었다. 즉, 실습기간동안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하였고,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실습기관에서 제시하는 실습일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면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조절효과 분석 결과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과 실습에 관한 요인이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30세 미만에서 교과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1세 이상에서도 교과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과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싶고,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편인지 등 교과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30세 미만에서 기관연계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31세 이상에서도 기관연계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연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한 결과이다. 30세 미만에서 실습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1세 이상에서는 실습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실습에서는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하고, 사회복지실습만으로도 사회에 나가 실무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습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등 실습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31세 이상에서는 발휘정도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습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지 등 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장 결론

제 1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실습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복지학과 요인(교과수업 만족도, 시설·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과 실습 요인(실습발휘 정도, 실습의 만족도)로 나누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교과만족은 대학(원)생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만족과 기관연계, 진로선택이 실습기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교과만족, 발휘정도, 진로선택이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실습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교과만족, 기관연계, 발휘정도, 진로선택은 실습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교과수업 만족도, 시설·기관 등의 연계를 원하는 정도)은 기각되었고, 실습에 관한 요인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채택되었다. 즉, 사회복지 실습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하고, 사회복지실습만으로도 사회복지실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는 진로 선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 결과 채택되었다. 즉, 실습기간동안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하였고,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실습기관에서 제시

하는 실습일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면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과 관련요인의 교과수업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먼저 30세 미만에서 교과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싶고,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편인지 등 교과만족은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한 결과, 30세 미만에서 실습만족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실습에서는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하고, 사회복지실습만으로도 사회에 나가 실무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습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등 실습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습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습에 관한 요인의 실습발휘 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30세 미만에서 발휘정도는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지 등 발휘정도는 연령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방향

본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전공 선택 만족도나, 교과 내용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초를 잘 다진다면 실습에 임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실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업을 만든다면 실습 시 적극적인 현장실습을 할 것이다. 또한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에 맞는 적성검사를 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게 학과에 적응하는 것이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학과는 고등학교와 연계를 시켜 사회복지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보여주고 시설·기관 등의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학과에 들어와서 적응도 빠르고, 졸업 후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실습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고 노인 관련 복지관 및 시설에서 실습을 많이 하였다. 사실, 노인관련 복지관 및 시설은 남자들의 힘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물론 여자들이 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복지 또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봉급에 있어서도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학생들이 복지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만 한정시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이 특정 대학의 일부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므로, 모든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대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고 있는 다른 과의 대학을 대상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학과와 비교해서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에 관한 설문문항이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하였다.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문항에 진로판단 문항 및 진로결정 문항을 작성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전문가 집단들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현재 실습을 마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습을 하기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전의 준비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실습 후 적성에 맞는 곳을 잘 선택했는지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슈퍼바이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슈퍼바이저의 실습생에 대한 지도 및

평가가 후속연구에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 조사지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주제에 대해 질적으로 접근하여 사회복지학과의 진로선택의 과정을 자세히 다룬다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선희·조휘일(2001) “사회복지실습”, 양서원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김용일·양옥경(2002) “사회복지 슈퍼비전론”, 양서원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학지사
- 송병일·박영주(2007) “직업진로설계와 취업전략”, 학지사
- 양옥경(2005) “사회복지실천론”, 나눔출판
- 이효선(2003)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학지사
- 조휘일(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8) “자기주도형 성공취업과 진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6)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인영(2002) “사회복지 실습”,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육개발원(1989) “고등학교 진로 교육 지도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 논문

- 김봉환(1998) “중학교 특별활동에 있어서 체육클럽활동의 운영실태”,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환(2007)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진(2004) “사회복지 실습 실습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희자(2003)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2003) “슈퍼비전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2002) “사회복지 실습 슈퍼비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경(2000)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연구: 지역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리(1992) “사회사업 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순(1998)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00)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습지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경(2001)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직 제요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민(2008)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향(2004)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의 실태와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민(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양식과 진로결정 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2001) “사회복지 전공 학부생 실습지도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경애(2006) “지각된 가정환경양식이 남·여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민(2006) “실습 경험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완(200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영(2004) “자기표현성, 진로결정수준, 교내외 활동참여정도가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량(2004)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년수준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기명(2002)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정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숙(2001)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실습기관 수퍼비전에 내용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숙(1999)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상담 프로그램 적용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완진(1999) “생애 교육집단 상담이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정체감 및 생애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영(1998)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및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창호(1989) “중학생 진로음악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영(2008) “현장실습경험이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간행물

- 김계현(1995)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생 진로계획”,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충기(1995)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교육 연구소
- 노상학(1994) “사회사업실습교육의 과제”,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류재중(2002) “사회복지실습에 임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 한국청소년학회
- 박완성(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학회
-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 유동철(1998)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정수경(2004)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지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조휘일(1999) “사회사업(복지)현장실습의 학습계약 형성요인의 고찰”,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생활지도연구소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Austin, M.(1981) *Supervisory Management for the Human Servic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ogo, M & Vayda, E, 1998, "*The practice of field instruction in social work theory and proc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 Crites, J. O.(1971).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McGraw-Hill.
- Fortune, A. E, 1994, "Field Education. In F. G. Reamer(Ed),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Knowledg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nzberg, E.(1951). *Occupation and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Description of an ezperimental diagnosis form for the selection of vocational assistance.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Kadushin, A.(1992) *Supervision in Social Work*,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Krumboltz, J. D.(1979).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In A. M. Mitchell, G. B. Jones, & J. D. Krumboltz(Eds.). *Social learning theory career decision making*. Cranston, RI. Carrol Press.

Miller, D. C., & Form, W. H.(1951) *Industrial sociology*. New York: Harper&Row.

Robert C. Storey(1979).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Project* Robert C. Storey[microform]

Super, D. E.(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2. 논문

Betz, N. E.(1992), *Counseling uses of career self-efficacy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22-26.

Creason, F., & Schilson, D. I (1970). *Occupational concerns of sixth-grade childre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8, 219-224.

Gati, I., Kr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4, 510-526.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developmental th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Long, B E, Sowa, C J., & Nile, S. G, 1995, Differences in student development reflected by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eni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1), 47-52

McKay, W. R., & Miller, C. A.(1982). Rel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ex variables to the complexity of worker functions in the occupational

choic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39

Osipow, S. H., G. C., & Barack, A.(1976). A social education –vocational under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Career*, 9, 233-243.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115-120.

V. A. Harren, 1979, "A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9, 71-80.

Wesbrook, B. W., Sanford, E. E., O'Neal, P., Horne, D. F., Fleenor, J., & Garren, R.(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38-355.

설 문 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NO	
----	--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엔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이해경 드림

e-mail : haikyong@hanmail.net

◎, 다음은 사회복지학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과만족

번호	사회복지학과에 관한 질문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만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2	교과과정 및 수업이 현장실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사회복지학과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 적용을 하는 편입니까?					
4	귀하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5	귀하의 수업 전공교과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2. 기관연계

번호	사회복지학과에 관한 질문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학과 전공하면서 전과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2	사회복지수업이 이론보단 실습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까?					
3	사회복지학과는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습만족도

번호	사회복지학과의 실습에 관한 질문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 실습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강조를 합니까?					
2	사회복지 실습만으로도 사회에 나가 실무에 활용 할 수 있습니까?					
3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4	내담자의 사정 및 기술을 배우고 면접까지도 학습 할 수 있었습니까?					
5	실습의 업무량과 귀하의 실천적 기술이나 이론에 적절했습니까?					

4. 발휘정도

번호	사회복지학과의 실습에 관한 질문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2	사회복지의 가치, 신념, 윤리적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3	귀하는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가치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4	귀하의 실습기관에서 제시한 커리큘럼(실습일정, 과제)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까?					

감사의 글

많이 아쉬움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게 되었지만, 언제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논문이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용섭 지도 교수님과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틀과 내용을 바르게 지적해 주신 박희서 교수님, 김진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통계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 이동수 박사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익수 교수님께서 아낌없이 도움과 격려로 도움을 받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인 조우기선생과, 김대균선생이 도움을 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나인수, 이광선, 정호영, 정선진, 김종언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뒤돌아 보면 추억이 적어 아쉽지만, 계속 연락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가족이 있어 힘이 솟았고 아낌없는 응원과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